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의원 대표발의)

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및 제36조의2 신설).

의안 번호	2569
----------	------

발의연월일 : 2016. 10. 4.
발 의 자 : 문미옥·박광운·김정우
위성곤·김성수·이정미
박 정·우원식·최인호
김병관·제윤경·이학영
김현미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이공계 대학 연구실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학업과 연구업무를 병행하여 수행 중인 학생연구원은 수행 연구업무의 방식과 내용이 정규직 연구원과 거의 동일하고, 참여·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음.

그런데 학생연구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구실 내 사고 발생 시에도 보상을 위한 안전장치가 거의 없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등 기본적인 보호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수행인건비는 상한액만 규정되어 있으며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최저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등 학생연구원의 처우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학생연구원과 임금, 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

법률 제 호

부 칙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부터 적용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 및 제3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5(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학생연구원의 근로계약 등)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학업과 연구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연구원(이하 “학생연구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연구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학생연구원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의2(과태료) ① 제1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1조의5(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학생연구원의 근로계약 등)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학업과 연구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연구원(이하 “학생연구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연구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학생연구원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제36조의2(과태료) ① 제11조의5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